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⑱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난타는 붓다의 신통력으로 향취산과 천상 궁전을 보게 되고 붓다의 설법을 듣고 난 후 오로지 천궁에 날 것을 염원하고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



난타, 붓다 따라 천상궁전에 가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난타는 머리를 내저었다.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난타야 그리로 가보자구나.

붓다가 왜 향취산에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난타는 붓다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 그는 향취산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는 붓다에게 어떻게 저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신통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붓다의 경지는 붓다만이 아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붓다의 경지를 알 수 없기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가 붓다의 법신을 이루려면 오랜 세월 붓다가 되기 위한 덕목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난타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보살들이 가장 먼저 닦았던 절대완전의 보시행을 완성해야 하며(布施波羅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완성(持戒波羅蜜)해야 하며, 번뇌의 속박을 떠나는 수행을 완성(出離波羅蜜)해야 하며, 어리석음을 떠나 존재의 궁극에 있는 실상을 깨닫는 수행을 완성(智慧波羅蜜)해야 하며, 몸과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고 도(道)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을 완성(精進波羅蜜)해야 하며, 시달림과 괴로움을 견디어 내는 수행을 완성(忍辱波羅蜜)해야 하며, 진실하여 거짓 없음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眞實波羅蜜)해야 하며, 굳게 뜻을 다지는 수행을 완성(決定波羅蜜)해야 하며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慈悲波羅蜜)해야 하며, 그윽하고 기울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행을 완성(舍波羅蜜)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 마지막으로 4선정과 3명6통을 얻어야 한다.

4선정(四禪定)은 마음이 통일된 상태다. 첫 단계는 악심(惡心)의 작용을 끊고 고요한 즐거움을 맛보는 경지다. 둘째 단계는 개개의 분별에 빠지지 않고 정신집중(三昧)에 의해 북받쳐 오르는 즐거움을 나게 하는 경지다. 셋째 단계는 그 즐거움까지 초월하여 몸도 마음도 거울처럼 맑아지는 경지다. 넷째 단계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정념청정의 경지다.

그렇게 마음이 통일되고 확호부동(確乎不動)한 경지에 들어 6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알아내는 숙명통(宿命通), 시간 공간의 제약을 떠나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천안통(天眼通),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他心通), 모든 일을 다 들어서 알아내는 천이통(天耳通), 어떤 경우에도 자유자재한 신족통(神足通),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는 지혜의 누진통(漏盡通), 이 여섯 신통력(神通力)을 얻은 후에야 숙주지(宿住智)를 얻을 수 있고 생사의 근본이법(根本理法)인 4제 12인연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런 뒤 선사(禪思)를 통해 세상을 조복 받음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깨달음을 완성하고 나면 향취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 우주의 어디라도 마음먹은 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난타로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붓다시여, 진정 여기가 향취산입니까?

난타는 붓다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느니라.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난타는 이곳저곳 둘러보았는데 과일나무가 자우룩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저곳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한 과일나무 밑에서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난타가 바라보니 그 원숭이는 애꾸눈이었다. 애꾸눈 원숭이는 낯선 이방인들이 이상했는지 얼굴을 똑바로 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타야 저 애꾸눈 원숭이가 보이느냐?

붓다가 난타에게 물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난타가 대답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애꾸눈의 원숭이와 너의 아내 손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겠느냐?

-붓다시여. 손타라는 마치 천녀와 같아서 용모와 거동이 제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원숭이를 그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 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난타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런 어조로 대답했다.

-너는 천상의 궁전을 본 일이 있느냐?

붓다가 머리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으로 가보자구나. 눈을 꽉 감고 내 옷깃을 단단히 잡으려무나.



난타가 머뭇거리는 손길로 붓다의 옷깃을 부여잡자 갑자기 붓다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금세 지상이 눈 밑으로 멀어지면서 그의 몸이 빠르게 구름 속을 빠져나갔다. 푸른 하늘이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그대로 그 빛살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난타가 천상에 닿은 것은 아주 잠깐 사이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도저히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난타야, 너는 천궁의 훌륭한 곳을 모두 보아두어라.

붓다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난타는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었다. 분명히 이것은 꿈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붓다의 신통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붓다의 옷깃을 잡고 천상에 온 것일까 싶다. 붓다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참으로 신통한 일이다.

-붓다시여, 정말 여기가 천궁이나이까?

난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보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천궁이니라.

-붓다시여, 이곳은 천궁의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붓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수미산 상봉에 있는 도리천이니라.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곳은 수미산의 정상이었다. 높이가 무려 팔만 유순이나 되는 곳이었다. 그 아래의 사만 유순은 사천왕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천왕천에서 상봉인 도리천까지 사만 유순은 천국이 없었다. 다만 그 공간에는 칠보로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도리천은 바로 그와 같은 이름다운 공간을 올라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달리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삼십삼천은 수미산 사방, 네 모퉁이에 있었으며 이들 상봉에는 또 각각 팔천이 있었다.

난타는 제석천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모든 하늘의 동산과 꽃과 열매와 목욕하는 곳과 천인들이 재미있게 노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북과 악기며 거문고와 퉁소 등의 미묘한 소리도 들었다. 아름다운 천녀들이 즐기는 모습도 보았다.

난타는 그렇게 구경하다가 한 성에 닿았다. 성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난타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곳에는 천녀들이 모여 있었는데 속세에 두고 온 손타라와 비교되지 않을 천녀들이 모여 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만 넋이 나가 소리치고 말았다.

-아아,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가 들어서자 천녀들이 천의를 하늘거리며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나같이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천자(하늘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난타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한 천녀에게 물었다.

-이곳에 천자는 올 수 없습니다.

천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올 수가 없다니요?

-다른 곳에선 남녀 천인들이 뒤섞여 모든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붓다의 아우만이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붓다의 아우?

-그렇습니다.

-붓다의 아우라면 바로 내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난타님 만이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난타님은 출가하여 오로지 범행(梵行)만을 닦다가 목숨을 마친 후에는 이곳에 와 날 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타는 그 말을 듣자 너무나 기뻤다. 그는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붓다에게 돌아왔다.

-그래 난타야, 하늘의 훌륭함을 보았느냐?

붓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

-그러합니다. 붓다시여.

-그래, 어떠한 일들을 보았느냐?

-용서하십시오. 붓다시여. 처음엔 붓다께서 저에게 환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악한 감정을 품었으나 천녀들을 만나보고 난 후 이곳이 정녕 천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천녀들을 보았다니 그 천녀들과 손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더냐?

붓다는 난타의 하열한 생각을 나무라지 않고 다시 물었다.

-붓다시여, 손타라는 그 천녀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녀에게 손타라를 비교하는 것은 저 향취산에 사는 애꾸눈의 원숭이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타야 너는 청정한 행을 닦아 천상에 나야 하지 않겠느냐?

-붓다시여, 이제부터 굳건하게 범행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 청정한 행을 수행한 이는 뛰어난 이익이 있나니, 너는 이제 굳건히 범행을 닦아 장차 천상에 나 이러한 쾌락을 받도록 하여라.

-그러하겠습니다. 붓다이시여.

붓다는 그 길로 난타를 데리고 정사로 돌아왔다.

붓다의 뒤를 따라 돌아온 난타는 심기일전하여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그는 오로지 천궁에 날 것을 염원하고 있었다.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

3

아직 읽어야 할 글은 한참인데 오오스마 기자에게 이끌려 국립 도서관을 찾은 것은 한 시간 후였다. 노트를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하지도 않은 도서관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그의 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다. 도서관으로 가는 내내 길에 서서 사 먹은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 향기가 입가에 남았다. 녹차를 우려내 우유와 설탕을 타 뜨겁게 끓여 주었는데 다른 음료에 비해 그렇게 향내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인데 유난히 향이 강했다.

짜이를 호르륵 호르륵 마시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만큼 개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았다면 물바가지라도 씌울 텐데 사람들은 무심이 지나쳤다. 오히려 곁에서 노상 방뇨하는 남자들이 더 이상해 보였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들은 끝까지 볼일을 보고 가던 길을 유유히 걸어갔다. 그런 나라였다. 문득 그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언제였지?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